

추모식사

권이혁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오늘은 抗日獨立과 民主建國을 위하여 一生을 바치신 古下 宋鎮禹先生님께서 誕生하신지 110주년이 되는 생신날입니다. 매년 誕辰日에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이 땅에 오셔서 55년의 짧은 生涯를 사시는 동안에 이 나라 이 民族에게 몸바치신 선생님의 偉大한 발자취를 살펴보고 追慕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그 뜻이 특히 悵別하여 선생님을 再照明하고 싶은 마음이 새삼스럽게 용솨음칩니다. 이 자리에는 崔圭鶴 報勳處長등 여러 貴賓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先生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 19세에 日本으로 건너가 東京에서 留學中에 留學生 親睦會 총무직을 맡으시고 ‘學之光’이라는 잡지를 편집하신 일은 周知되어 있는 바입니다. 歸國하신 後 27세의 젊으신 나이에 中央學校 學監을 거쳐 校長에 就任하셨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9세 때는 中央學校를 中心으로 學生會를 조직하고 中央學校 宿直室에서 仁村 金性洙 선생, 幾堂 玄相允선생등과 조국독립운동을 계획하여 마침내 3·1 독립운동을 일으키셨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先生님께서 펼치신 獨立運動은 다른 분들과는 달랐습니다. 物產獎勵運動, 文盲退治運動을 추진하셨는가 하면 民立大學 設立運動에 앞장서시기도 하셨습니다. 1925년 36세 때 하와이에서 열렸던 汎太平洋民族會議에 參席하셔서 李承晚 博士를 만나셨을 때 亡命提議를 받으셨으나 拒絕하시고 國內에서 獨立運動을 主導하시기로 하셨던 일 또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몸소 屈辱과 絶望과 無知와 貧困속에서 헤매는 겨레의 품속으로 뛰어들어 모든 고난을 겨레와 함께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日帝의 壓迫에 항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투성이의 투쟁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결단과 자세는 단순한 愛國熱血 이상으로 불굴의 鬪志와 忍耐와 그리고 원대한 經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言論人으로서 先生님께서 겪으신 일들은 새삼 紹介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東亞日報의 총수로서 민족정신을 代辯·鼓吹하시는 동안 누차의 獄苦를 개의치 않고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신 것은 선생님께 있어서는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일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解放直前に 4차에 걸쳐 總督府로부터 政權引受交渉을 받았으나 拒絕하셨던 일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선생님의 희생적 투쟁은 대한민국 수립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解放이 되자 衆望를 짊어진 채 선생님이 建國創業의 숭고한 업무의 중심에 서시게 된 것은 事理의 필연적 귀결이었습니다. 민족진영을 통합한 韓國民主黨의 首席總務인 동시에 重刊된 東亞日報의 社長으로서 나라 세우기에 침식을 잊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風餐露宿하며 고생하신 海外亡命志士들의 還國迎接이나, 구름같이 모여드는 동지들과 함께 신탁통치반대를 논하면서 새로 건설할 나라의 틀을 설계하기에 해방의 기쁨을 느껴보실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 강인한 鬪志와 원대한 經世方略을 펴볼 기회를 미처 잡기도 전에 暴徒의 흉탄으로 그 고매한 일생을 마감하셨으니 온 국민이 國運의 비색함과 비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先生님께서 남기신 가지가지 語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값진 敎訓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敵을 치려면 敵을 알아야 한다는 論理, 光復運動의 바람직한 方法, 民族不滅論, 信託統治 反對論등에 관한 語錄은 대단히 有名합니다. 1940년 東亞日報가 廢刊된 후 學兵勸誘演說을 強要 당하셨을 때 이를 一蹴하면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膾炙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이요, 귀요, 입인 東亞日報가 廢刊되었으니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병어리가 된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말을 하겠는가?” 解放되기 前年 어느 봄날 先生님을 苑西洞 自宅으로 찾아뵈었을 때 先生님께서 주신 말씀은 永遠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말은 일에 誠實할 것과, 경솔하게 입을 놀리지 말라는 두 가지를 언제나 머리속에 넣고 있어야 한다는 忠告였습니다.

오늘날 先生님을 欽慕하는 人士들이 더욱 精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現象이라고 믿습니다. 先生님께서 教育家·言論人·獨立運動家·政治家로서 뿐만 아니라 文化人으로서 이 나라 이 民族에 寄與하신바가 큰 까닭입니다. 지난 1997년에는 政府에서 先生님을 ‘12月の 文化人’으로 選定하여 여러가지 紀念行事가 舉行되었는데 先生님의 遺品展示는 지금도 世人들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우리들은 第16代 總選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投票率이 57.2%이었으며 우리나라 選舉史上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政治에 대한 無關心 그리고 不信이 이와같은 結果를 招來 했다고 생각합니다. 先生님께서 저희들을 내려다보시면서 걱정하실 것을 생각하니 限없이 선생님이 그리워집니다. 더욱이 이날은 上海臨時政府樹立 80周年 記念日이기도 하였습니다. 上海臨時政府의 法統을 누구보다도 強하게 支持하셨던 先生님의 모습이 더욱 돋보이기도 하여 感懷가 無量하였습니다.

한편으로 先生님께서서는 대단히 幸福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孫子이신 宋相現博士의 孝誠은 참으로 지극합니다. 서울法大의 教授직과 더불어 美國 뉴욕大學의 碩座교수로서 활약하는 그야말로 國際的 法學者이며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人物입니다. 서울法大學長을 비롯하여 여러 職責을 통해서 活躍하는등 대단히 바쁜 중에서도 先生님을 모시는 至誠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今年은 새 千年의 첫해입니다. 그리고 光復 55周年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韓國政治學會에서는 光復節을 계기로 '建國의 指導者'라는 主題로 學術심포지엄을 열고 先生님을 再照明하고자 計劃하고 있습니다. 先生님께서 生前에 것처럼 사랑하시던 이 나라가 더욱 正義롭고 富強하며 統一에의 길을 열어서 世界平和에 크게 寄與할 수 있도록 새삼 努力할 것을 다짐하면서 追慕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